

국힘 '한동훈 비대위' 논쟁... "당 구할 적임자" "윤석열 아바타"

긴급 의총 주류측 추대 움직임에 비유계 강력 반발 총선 공천 주도권 싸움... 주말까지 인선 마무리될 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급부상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당내에서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비롯한 주류 인사들이 한 장관을 총선 국면에서 비상 사령탑으로 내세우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윤(비윤석열)계는 대체로 한 장관 카드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주류 측은 높은 인지도에 비정치인 출신의 참신함, 여론에서 단연 돋보이는 대야 전투력 등을 들어 한 장관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당원이나 지지층으로부터 폭넓게 인기를 누리는 그가 당에서 떨어진 중도·부동층 민심까지 견인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주류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한 장관의 최대 약점으로 꼽고 있다. 선거 실무 및 당무 등에 이해가 부족한 그가 공천 과정이나 선대위 운영 등 총선 직전 급박하게 벌어지는 각종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당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검사 출신 대통령에 검사 출신 당 대표'라는 조합도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지난 15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긴급 소집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실제로 드러났다.

주류 측은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며 한 장관을 반드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비주류에서는 "윤 대통령의 아바타", "새로운 김주애", "바지 사장" 등 원색적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양측의 대립을 두고 총선 공천 국면에서 주

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자의 셈법이 작용한 것 이란 분석이 나온다.

친윤 주류는 한 장관에게 이른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고, 한 장관이 비대위를 이끌면 공천 경쟁이 유리해질 것 이란 기대감 속에 '한동훈 추대론'을 띄우고 있다 는 것이다.

반대로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에는 대통령실·검찰 출신 등 이른바 '윤산 신인'들과 공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장관까지 지도 체제를 이끌게 되면 공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있다.

즉, 총선을 넉 달 남긴 상황에서 당 지휘봉을 잡는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천 룰 확정 등 공천에 실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울 명지대 교수는 1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특정인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 줄을 댄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선임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본격적으로 더 큰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권한대행은 18일 원내의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의견 수렴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선 공관위 구성 시한(1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하며 이번 주말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가 길어지면 내부 잡음만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시기에 대해 "성탄절 연휴 전후로는 의견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기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오른쪽)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여약사대표자 대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이르면 오늘 외교안보 라인 개편... 외교장관에 장호진 급부상

국정원장 조태용 안보실장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8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실장,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추가 인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검증이나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는데 검증도 있고 살펴볼 게 많다"며 "(시점은) 지

금 뭐라 말을 할 수 없다. 유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준비 상황에 따라 내일(18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해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후임으로는 장호진 현 외교부 1차관이 급부상한 가운데 조태용 전 외교부 2차관 등도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장 차관은 현 정부의 첫 루머시아 대사를 비롯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미국장 등도 역임해 미국·북핵·러시아 등 업무에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 나온다.

주스페인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조 전 차관의 경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안보실장 물망에 올랐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실이 일부 유임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후임 안보실장 인선 여부에 따라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 폭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안덕근 지명

"이론·실무 겸비한 통상 전문가"



영도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 산업계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간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국제화 확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자는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 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후보자의 검증된 업무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

최상목 "R&D 예산삭감은 불가피한 구조조정"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

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R&D 예산 규모가 최근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등 부작용이 심해졌으며, 내년 R&D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는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며 "일반적인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세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2024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건전하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8%라는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경제활력, 국민 안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충분히 돈을 썼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설계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부정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대표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